# 성모 어머니께 드리는 글

나의 사랑 성모 어머니!

나 어릴적 예수님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 끊고 아름다운 장미꽃의 화관을 만드는 묵주기도을 바쳤으며,나이들어 철이들어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상 앞에서 무릎 끊고 기도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되어서는 순종의 동정녀 마리아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의 묵주을 바쳤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는 자애롭고 인내의 여인인 어머니 앞에 앉아서 끊없는 청원의 전구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때론 희망의 기도로 또는 감사의 기도로 가끔은 고통과 애절함으로 통곡의 기도을 드리면서 절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만 보시며 침묵하고 미소짓는 어머니 앞에서"가나안 잔치에서 보여주신 믿음은 어디에 있냐고" 더 더욱 때을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느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선택된 순수한 소녀가 순종의 열매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고 고통의 골고타 길을 걸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처참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저 순명으로 참아냈어야 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것을~~

"그래, 얘야 힘들지! 내가 너의 엄마란다.내 품에 안기어 편히 쉬어라~~"

그제야 저는 큰소리내어 엄마! 엄마!을 부르면서 커다란 기쁨의 눈물을 흘릴수 있었습니다.

왜, 5월을 성모 어머니의 달로 이야기 하는지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 우리을 힘들게 하지도 너무 추워 우리을 꽁꽁 얼어 붙게하지도 않는

잔잔하고 따스하며 모든 꽃들이 만발하고 만개하는 아름다운 5월처럼 이세상의 어떤 아름다움 보다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여!!!!!

어떠한 단어로 어머니을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로 어머니을 칭송 할 수 있을까요?

강하신 어머니들의 어머니요. 위대한 여인들의 여인이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예' 한마디로 동참하신 순명의 어머니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 중의 여왕이신 영원한 나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시여!

당신이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이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같이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어머니여,

저의 공동체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을 엄마의 아드님,입김을 불어 넣으시며 영혼과 사랑을 준 우리들의 죄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을 기꺼이 지신 예수님께 전구 하여주소서.....

나의 사랑 성모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2015 년 5월 화창한 날에

이클라라가 올립니다.

오월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봅니다.

모두가 성모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립니다.
우리성당에도
돌조각으로 그려진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모님은
무언가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웬지
그 성모님은
세상 안에서
조롱 받고
무시 받고
멸시 받았을 그런 모습 이시었습니다.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그런이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자 하셨던
성모님의 사랑을
어떤 작가의 손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 아니신가요 ?

주님께서는, 이세상에서
아픈이들과 함께하시고
억눌려 지내는 이들과 함께하시고자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밑에 함께 계셨던 성모님,
그리고 주님의 유언대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

저희도 주님의 유언대로
교회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픈이들과
억눌려지내는 이들과
세상에서 멸시 받는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항상,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모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눌수 있는

착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것을 하지못하고 지내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시요

2015 년 성모의 밤을 맞아
성모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요한 올림

성모 성월에.
성모 마리아 어머님께 드립니다.
따뜻한 햇살아래 장미화 가득피었네.
아름다운 마음 전하라는 희망의 속삭임이네.
성모님 마음은 초록빛 세상.

하느님을 향해가는 믿음을 바른길로 인도하시네.
성모 마리아 어머님의 삶을 닮아가고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신앙 생활의 본이 되셨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님
기쁨으로 드리는 꽃 한짝 피우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성모 마리아 어머님 사랑합니다.

글로리아가 드립니다.

#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사랑하올 어머니

당신의 딸은 어머니를 부르며 기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모성어린 눈빛으로 두팔벌려

저를 안아주실 때에

저의 한 없는 기쁨은 ------

인내하여라, 온유 하여라, 사랑하여라 !

세상의 온갖 시련앞에서

무례하지 않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굳건케 하실 때에

저의 끝없는 눈물은 -----

저를 한없이 뜨겁게 합니다.

어머니의 무궁한 은총은 희망이며 축복이옵니다.

영원히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마땅히 이웃을 위해 미소짓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깨끗케 되도록

저를 위해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  아멘

2015 년 성모의 밤에  쎄라피나 드림